

티벳독립운동의 경제적 배경*

李 民 子

1. 서론
2. 1959년 '민주개혁'의 의미
3. 개혁기 중앙정부의 티벳정책 및 효과
 - 1) 재정지원정책
 - 2) 藏族에 의한 티벳 중국화
4. 결론

1. 서론

티벳사회는 1950년대부터 중국에 편입되면서 그들의 전통과 이질적인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문혁기(1966-76)동안 중국에서는 소수민족에 대한 강제적 동화정책이 실시되었고 티벳도 예외가 아니었다. 티벳의 승려들은 종교적 활동마저 제한당하고 강제로 승복을 벗어야 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홍위병들에 의해 티벳의 많은 사원들이 파괴당하기도 했다. 1959년이전 티벳의 승려수는 11만-12만였으나 1989년 승려수는 3만 5천여명에 불과하다. 전체 인구의 10% 정도가 승려였던 종교중심의 티벳사회에서 1959년 이후 승려수가 약 1/3로 격감했다는 것은 티벳사회의 격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개혁이후 중앙은 소수민족 정책을 유화정책으로 변화하여 중국에서 분리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 제한적이지만 소수민족의 종교·문화활동의 자유를 허용했다. 1980년 5월 후야오방(胡耀邦) 총서기는 티벳시찰을 하고 대규모 경제지원을 약속했다. 이처럼 개혁후 중앙은 온건한 방법으로 티

* 이 논문은 1997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해외지역연구 연구비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벳의 독립을 막으려 했으나, 1987년 10월 티벳에서는 1959년 티벳독립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티벳 독립을 주장하는 시위가 발생했다. 그 후 1989년 3월에도 독립항쟁 30주년을 맞아 3일간 라싸 주요 사원의 승려들을 중심으로 티벳독립 운동이 다시 발생했다. 중앙정부는 1989년 3월 계엄령이라는 단호한 조치를 통해 티벳인들의 독립운동을 불허했다. 라싸지역에 내려진 계엄령은 1990년 5월 1일이 되어서야 철회되었다. 계엄령이 해제된 후에도 93년 5월 물가상승과 세금인상에 항의하는 시위가 라싸에서 있었고, 96년 5월에는 달라이라마 사진을 사원에서 강제철거하는 것에 항의하는 시위가 있었다(『한국일보』, 1990/5/23, Robert Barnett, 1994: 207, 『동아일보』, 1993/5/26, 『한겨레』, 1996/6/3).

왜 이처럼 티벳인들은 개혁이 본격화되는 1987년부터 지속적으로 분리독립 운동을 해 오고 있는가? 중국 중앙정부는 티벳이 중국에 경제적으로 강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티벳 독립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전개해 왔다. 중국 중앙정부의 주장에 의하면 개혁개방 후 티벳은 중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중앙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제적 혜택을 누리고 있다. 티벳 지역은 중앙의 경제적 지원이 없이는 독자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조건에 처해 있다. 광동성처럼 경제적 자립도가 높고, 중앙정부에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비율의 세금을 내야하는 조건에서 독립을 주장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합리성이 있다. 하지만 티벳은 오히려 중국 중앙정부의 주장에 의하면 개혁기 다른 연해지역의 부유한 省에서 거두어들인 세금을 보조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러면 경제적 지원이 약속되는 대신 漢族으로의 동화정책이나 중앙정부의 정치적 통제가 강화되었는가? 사실상 개혁기에 소수민족에 대한 정책은 소수민족의 전통적인 특성을 어느 정도 허용하는 등 문혁기에 비해 완화되었고, 제한적이지만 종교적 활동의 자유가 허용되었다. 그런데 왜 티벳인들은 4천개가 넘는 사원이 파괴되고, 많은 라마승들이 고초를 겪어야 했던 문혁기에도 숨죽이고 있다가 티벳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이 ‘채찍’이 아닌 ‘당근’으로 변화하는 개혁기에는 티벳독립을 주장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여오고 있는가? 티벳독립운동을 ‘소수민족의 민족주의’로 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종교적 자유를 위한 ‘순교자적 저항’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인가?

티벳독립운동과 관련하여 기존 연구의 하나는 인권보호, 소수민족 전통의 유지, 종교적 자유에 초점을 두고 티벳독립운동을 해석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티벳이 중국의 일부인가 아닌가에 관한 역사적 근거를 고찰함으로써 티벳 독립의 타당성여부를 논하는 연구경향이다. 이런 연구경향은 중국이 소수민족 지역 분리를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티벳인들이 왜 독립운동을 하는지를 설명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 그러나 이런 연구는 티벳이 중앙정부에 경제적으로 깊이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티벳독립운동이 일부 승려들의 비합리적, 비현실적 주장이라는 중앙정부의 비판에 대해서는 적절한 설명을 못했다.

기존연구의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위해 이 글에서는 중앙정부가 티벳 독립의 비합리성으로 제시하는 바로 그 경제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티벳인들이 왜 독립을 주장하는지 분석하려 한다. 티벳 독립운동의 경제적 배경을 이해하기위해 다음 두가지를 고찰할 것이다.

첫째, 1959년 티벳에서 발생했던 ‘민주개혁’의 의미를 해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티벳독립운동의 중심세력을 형성해 온 승려들이 독립을 요구하는 ‘경제적 동기’를 이해하고자 한다. 티벳 독립운동을 이해하기 위해 40여년 전에 있었던 “라싸사건”의 의미를 해석해 보고자 하는 이유는 이 사건 후 티벳이 실제로 중국에 속하게 되는 정치·경제적 개혁 작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1959년 이전 사원은 티벳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적 세력이었다. 그런데 민주개혁 이후 사원은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게 되어 경제적 기반이 상실되었다. 사원의 경제적 기반 상실은 티벳지역에서 전통적으로 해 온 사원의 다양한 역할을 현저하게 약화시켰다. 이런 민주개혁 전후의 변화에 대한 고찰을 통해 사원이 왜 독립운동의 중심이 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개혁기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정책과 간부 및 교육정책을 고찰할 것이다. 중앙의 재정지원이 어떻게 사용되고, 藏族 간부의 증가를 티벳의 정치적 자율성의 확대라고 볼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 볼 것이다. 개혁기 중앙정부의 티벳정책을 다루려는 이유는 이 시기 티벳에 대한 중앙정부의 경제적 지원이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티벳독립운동이 강렬하게 발생하는 모순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가장 경제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시기를 택하여 티벳인들이 왜 독립을 지지하는지 고찰할 것이다. 티벳 독립운동의 경제적 동기를 설명함은

중앙정부의 주장과 상반된 상황을 보여줄 수 있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흥미롭다. 티베트가 독립을 주장하는 종교적·역사적·문화적 이유들은 비교적 쉽게 ‘티베트의 독특한 전통’이라는 맥락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중국 중앙정부의 주장에 의하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티베트는 중국의 일부로 남아 있는 것이 티베트인들에게 유리하다. 그런데 왜 티베트인들은 자치권을 요구하고 더 나아가 티베트독립을 주장하는지 그 경제적 요인을 탐구해 본다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정책이 티베트인들에게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고, 또 실제로 티베트에서 중앙정부의 주장과 다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결론을 미리 밝히면 이 글에서는 티베트인들이 독립을 주장하는 경제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한다. 사원을 중심으로 한 승려계층은 티베트독립을 통해 1959년 상실했던 정치·경제적 권한을 회복하려 한다. 일반 티베트인들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티베트독립이 티베트의 전통·종교·문화적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런 僧俗 양자의 이해관계가 티베트 독립운동의 경제적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2. 1959년 ‘民主改革’의 의미

1959년 티베트¹⁾의 수도 라싸에서는 중국의 티베트 점령에 저항하는 대규모의 티베트독립운동이 발생했다. 그 과정에서 티베트의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 달라이라마

1) 티베트자치구는 장족 인구의 45.7%(209.7만)가 이 지역에 거주하며, 소수민족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자치구로 장족 인구가 95.5%로 절대 다수이다. 티베트는 총면적이 120만 평방킬로미터로 중국 전체 면적의 1/8이고, 그 중 해발 5000미터 이상 지역이 전체 면적의 약 46%이고, 해발 4000-5000미터가 41%로 이 지역은 초원이거나 草山이다. 해발 3000-4000미터가 전체 면적의 8%로 이 지역은 半農半牧지역 혹은 농업과 임업지역이다. 해발 3000미터 이하는 단지 5%에 불과하다. 티베트의 인구가 상대적으로 집중된 지역은 一江兩河지역이다. 一江兩河"지역은 라싸, 山南, 日喀則 3개 도시와 18개 縣이 포함되고 면적은 6.57만 평방Km이다. 18개 縣은 티베트 72개 縣의 1/4이고, 토지면적은 티베트 전체 면적의 1/10에 해당된다. 一江兩河 하곡지대는 해발 2600-3900미터이고, 티베트의 주요한 농업지역이다. 이 지역내 인구는 87만으로 티베트 총인구의 40%가 이 지역에 거주하고, 총경작지의 60% 이상이 이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이 지역은 경제·정치·문화·종교·교통의 중심지이다 (吳健禮, 1995: 1-2; 孫競新, 1994: 35).

가 인도로 망명했고, 티벳의 봉건제 경제구조가 붕괴되는 경제적 대격변이 발생했다. 중국 중앙정부는 봉건제의 붕괴로 대다수 티벳 일반인을 착취해 온 봉건 영주들이 몰락하고 평등한 사회가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이 1959년의 『라싸사건』을 『민주개혁』이라 부른다. 1959년이전 티벳은 종교·문화적 활동의 자유와 정치권력은 상호 결합되어 있었다. 사원을 중심으로 정치·문화적 통제가 이루어지던 티벳사회가 사회주의사회로 변화되기 시작한 것은 1959년의 ‘民主改革’이다. 1959년이전 사원의 독자적인 재산을 기초로 이루어졌던 사원의 역할은 민주개혁으로 재산이 국가로 몰수되면서 사실상 중지되었다. 이 장에서 『민주개혁』의 의미를 해석하려는 이유는 티벳승들의 독립운동이 사원의 재산권회복과 연관이 있음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 1959년이전 사원의 정치·경제적 역할을 고찰하여 제정일치의 사회라는 티벳의 특성을 이해한 후, ‘민주개혁’이 사원경제에 미친 영향을 고찰할 것이다. ‘민주개혁’전후 사원 경제의 변화를 고찰하는 것은 왜 티벳 독립운동이 사원과 승려들을 중심으로 발생하는지를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해 보려하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1959년이전 ‘티벳 봉건제’²⁾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진척되어 있다. 티벳 봉건제에 관한 연구는 중국정부의 정치적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연구경향은 티벳의 3대 영주가 어떤 방식으로 티벳 인민을 착취했는지를 소개함으로써 중국정부가 민주개혁을 통해 이런 봉건제의 억압에서 티벳의 대다수 인민을 해방시켰다는 주장을 끌어내는 것이다.

봉건제하에서 티벳의 토지와 농노의 최고 소유권은 티벳지방정부에 있었고, 티벳정부는 사원과 귀족이 중죄를 지었을 경우 그 토지와 농노를 몰수할 권한이 있었다. 몰수한 토지와 농노는 정부 임의로 처리했다. 이처럼 원칙적으로는 토지와 농노가 정부소유였으나 실제적으로는 불교사원, 官家와 貴族 등 3대 영주가 티벳의 95% 이상의 경작지와 목장, 목축 등 주요 생산수단을 점유하는 동시에 농노의 인신을 점유했다. 3대 영주 중 사원은 가장 강력한 경제적 기반을 소유했다. 관련 통계 자료에 의하면, 1959년이전 티벳의 사원과 상층 승려는 티

2) 티벳의 장원제도(장어로 시카)는 산남지방에서 처음 발전한 것으로 추측된다. 티벳에서는 대략 9세기 중엽-13세기 중엽에 걸쳐 노예제가 점차 소멸하고 농노제가 발전하기 시작했다. 明末 5세 달라이라마와 구시한(固始汗)이 티벳 지방정권을 장악했을때가 티벳 농노제가 절정에 이른 시기이다. 이 시기 티벳 농노제는 정식으로 3대 영주(사원 영주, 정부 영주, 귀족 영주)를 형성했다(牙含章, 1988: 54).

넷 경작지의 약 37%를 소유했고, 목축이나 목장 소유도 이와 비슷한 비율이었다(羅潤蒼, 1994: 34-35).

종교적 색채가 강한 티벳 정부 역시 종교사업에 막대한 지출을 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사원과 상층 승려는 사회적 부의 소유자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부의 최대 소비자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티벳정부는 티벳승들의 종교적 활동에 다음과 같은 지원을 했다. ‘티벳의 哲蚌寺, 色拉寺, 甘丹寺 등 3대 사원에는 16,500여명의 티벳승이 있었다(哲蚌寺, 7,700명, 色拉寺 5,500명, 甘丹寺 3,300). 그 외에 라싸 부근의 기타 사원에도 약 10,000의 티벳승이 있었고, 매년 藏力 正月에는 라싸에 한달 동안 모였는데, 이를 “傳大昭”라 했다. 1개월 동안 2만 이상의 티벳승의 음식은 완전히 티벳 지방정부가 제공했다. 2월초 2-3천명의 티벳승이 라사에서 모였는데 이를 “傳小昭”라 했다. 이 집회시의 식량도 티벳 지방정부가 제공했다. 포타라궁에는 항상 5백여명의 티벳승이 거주했고 이들도 매년 대량의 양식을 소비했다. 티벳 지방정부 수입의 50% 정도는 티벳승의 생계유지에 사용되었다’(吳從衆, 1991: 334). 이를 통해 볼 때 1959년이전 티벳의 승려들은 정부로부터 막대한 경제적 지원을 받았고, 그들의 종교적 활동은 티벳사회의 주요활동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정치적 면에서도 사원의 승려들은 중심적 역할을 했다. 티벳의 僧官은 수도 많을 뿐 아니라 지위도 보편적으로 俗官보다 높다. 중대한 사무는 반드시 라싸 3대 사원의 대표가 참가했고, 정책결정인의 숫자는 승려들의 수가 우세했으며, 승려들은 많은 정책 거부권을 지녔다. “종교분리”로 여겨지는 일체의 행위는 승려들의 허가를 얻을 수 없었다. 噶廈³⁾의 모든 일의 출발점은 “불교의 발전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그 주요 업무는 대규모의 라싸 법회에 물자와 인력을 공급하고 사원을 수리·확장하는 등 불교활동이 주류를 이루었다⁴⁾(羅潤蒼, 1994: 35). 이런 정치·경제적 역할을 고려 할 때 티벳 사원은 정신적으로만 티벳인들의 생활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권력의 핵심으로서 티벳사

3) 가사(噶廈): 이전 티벳 지방정부의 최고 행정기관으로 라싸에 설치되었다가 1959년 라싸사건 이후 해산되었다.

4) 민중개혁전 티벳 지방정부의 재정은 지방정부가 직영하는 장원에서 나오는 세금 수입, 塩稅, 茶稅, 黃金稅, 畜山品 수출稅 등의 수입, 지방정부가 내놓은 고리대 이자수입, 일반인과 관리들이 사원에 보시한 수입, 화폐(藏鈔)발행수입 등으로 형성되었다. 이런 재정수입은 주로 종교활동과 사원에 지출되었다(吳健禮, 1995: 76).

회에서 영향력이 강했다고 생각된다. 사원과 승려가 티벳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1950년대까지 티벳의 사원은 2,670개 정도였고, 사원에 거주하는 승려와 비구니는 12만명 정도로 총인구의 10% 이상을 차지했다. 비구니 비율이 낮은 점을 고려하면 승려는 티벳 남성 인구의 20% 이상이었다(羅潤蒼, 1994: 36).

문화적인 면에서도 사원은 티벳만의 고유한 전통과 관습을 만들어내는 산실 역할을 했다. “불교사원은 문화전파와 누적의 중심으로 교육을 독점했고, 사원·종교·승려를 떠나서는 학교와 교재 및 스승의 자격을 논할 수 없었다. 상층승려와 귀족관리들로 구성된 지식인 집단은 사회의 극소수였고 이들 집단은 사원·종교·티벳승과 분리될 수 없었다. 불교사상은 티벳사회의 통치사상이었고 전사회의 모든 영역에 퍼져 있었다. “政教合一”의 통치하에서 格魯派 사원 및 상층승려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서 지배적 역할을 하고 높은 지위를 누렸다(羅潤蒼, 1994: 36). 사원은 그 막강한 경제력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기반으로 티벳 특유의 문화와 종교를 형성하는 역할을 했고, 그에 필요한 대규모 승려집단을 부양했다.

이하에서는 승려층과 사원 중심의 독특한 티벳사회가 어떻게 유지되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몇가지 의문을 중심으로 봉건제하에서 티벳의 경제구조를 살펴보려 한다. 어떤 과정을 통해 일부 승려계층과 사원이 티벳 토지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는가? 제한된 장원을 둘러싸고 귀족계층과 승려계층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었는가? 농노들은 봉건제가 유지되기 위해 어떤 부담을 져야 했는가?

티벳 역사에서 還生에 의한 정치적 승계제도는 “莊園流轉”문제를 발생시켰다. 정치권력의 장악은 곧 장원의 확대로 이어졌고, 제한적인 장원을 놓고 지배층 내에서 치열한 쟁탈전이 벌어졌다. 티벳의 환생권력승계제도는 합법적 계승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했으나, 통치의 연속성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다. 환생한 달라이라마 후계자는 모두 어린아이였으므로 필연적으로 통치상의 과도가 발생했다. 이런 후계제도로 인하여 과도기를 통치할 어떤 제도가 필요했다. 티벳의 규정에 따르면 후계자가 18세 성년이 되어야 통치할 수 있었고, 그 과도기에는 달라이라마의 명의로 섭정통치가 이루어졌다. 섭정라마는 活佛 중

에서 정해졌다. 1757년 이래 11명의 섭정라마가 있었다. 자연사망이나 음모로 인하여 티벳 대부분 시기는 섭정통치였다. 역사상 달라이라마는 단지 합법성의 상징에 불과했다. 1757년에서 1895년까지 티벳 정치의 최고 지도적 위치는 실제상 섭정의 손에 장악되었다. 1757에서 1950년까지 평균 13년마다 통치자가 바뀌었고, 섭정통치의 기간은 77%였다. 만일 38년을 통치한 13세 달라이라마의 통치기(1895-1933)를 제외하면 섭정통치의 기간은 약 94%이다((美) 梅龍. C. 高爾德史泰恩, 1988: 40).

이런 티벳 정치제도의 특징으로 인하여 달라이라마 혹은 섭정이 바뀔때마다 토지(莊園)의 새로운 수요가 발생했다. 평균 13년마다 통치자가 바뀌었다고 계산하면, 티벳의 승계제도는 끊임없는 토지수요를 발생시켰다. 한 예로 달라이라마가 출생한 가정은 갑자기 “귀족”으로 되고, 즉시 티벳 귀족의 최고 계층으로 진입하게 된다. 이런 가족은 모두 새로 획득한 사회적 지위에 걸맞게 경제적으로도 충분한 장원을 소유하게 된다. 14세 달라이라마는 27개 장원을 소유했다고 한다. 따라서 대규모 장원을 소유한 상층귀족과 상층승려 집단간 장원쟁탈전은 정치권력투쟁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승려들의 경제적 기반은 나랑(拉讓)이라는 종교조직이다. 拉讓은 직역하면 “티벳승의 가업”이라 할 수 있다. 비록 이런 조직이 비교적 큰 사원의 일부분이지만, 사원과 별도로 독립적으로 재산이 관리되었다. 초기의 拉讓 조직은 작고 시주에 의존했으나 拉讓을 지도하는 活佛이 높은 명성을 얻으면 많은 신도들을 거느리고 사원이나 승려수도 증가되었다. 티벳승이 직접 관리하는 이런 나랑은 모두 티벳승의 재산이 된다. 많은 拉讓이 이렇게해서 大莊園이 되고, 특히 섭정하는 사람의 拉讓은 티벳승 재임기간 동안 매우 부유하게 된다. 예컨대 다자(達扎)가 1940년 섭정을 맡을 때 그의 拉讓은 매우 작았으나 1950년 정권을 달라이라마에게 넘겨 주었을 때 그의 拉讓은 이미 거부로 변해 있었다((美) 梅龍. C. 高爾德史泰恩, 1988: 40-41).

정치권력을 이용한 장원확대가 진행된 결과 17세기 중엽 明末부터 3세기 동안 3대 영주가 소유한 장원 중 정부의 장원은 날로 감소하고 대사원과 대귀족의 장원은 날로 증가했다. 귀족집단은 대략 200개 가문이었고, 이들은 명성·지위·재산 정도에 따라 4계층으로 구분되었다.⁵⁾ 최고귀족계층은 달

라이라마가 출생한 가문으로 1950년까지 6개 가문이었고, 그 다음 계층은 고대 귀족의 후예 가문으로 4개 가문이다. 이들 가문들은 모두 많은 장원을 소유했다. 세 번째 계층은 티벳 공신의 후예로서 15 가문으로 噶倫과 같은 주요관직을 차지했다. 가장 하위 계층의 귀족은 약 175개 정도 가문으로 많은 하위 귀족들은 빈곤했고, 정치·경제적 힘도 미약했다. 원칙적으로 모든 귀족이 정부의 관직을 맡을 수 있었으나 실제로는 상위 25가문에 해당되는 상층귀족계층이 정부의 주요 관직을 독점했다((美) 梅龍, C. 高爾德史泰恩, 1988: 42-43).

새로운 장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위해 몰수가 중요한 재분배 수단이었으며, 일부 영주의 장원이 몰수되어 다른 영주의 재산이 되는 일이 끊임없이 발생했다. 장원 몰수의 주요대상은 많은 장원을 소유한 상층귀족 가정이었다. 티벳은 라마승이 통치했기 때문에 귀족은 사원보다 장원몰수의 위협이 더 컸다. 사원 재산은 단지 영주가 반정부 범죄를 범했을때만 몰수했고 일정시간이 지난 후 반환되었으나 귀족 장원의 몰수는 이유가 비교적 가벼웠고, 귀족은 몰수된 장원의 소유권을 영원히 상실했다. 따라서 상층귀족은 장원몰수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고위관직에 진출했다. 高位官職은 사회적 존경과 권력을 보장하는 외에 莊園상실이라는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일종의 안전장치 역할을 했다. 고위직과 莊園 유지와의 관계는 부유층이 고위관직을 독점했다는 점에서 잘 알 수 있다. “1900년-1950년까지 총 41명의 噶倫⁶⁾이 있었고, 그 중 승관이 12명, 속관이 29명이었다. 속관 중 密扎⁷⁾ 및 고위층 가족 출신이 72%였고, 나머지 28% 중 부유층 가족이 14%였다. 결국 속관의 噶倫 중 密扎 및 고위층 혹은 부유층 출신이 86%였다. 12명의 승관 중 귀족 출신이 33%, 그 외 33%는 부유한 사원 가족이었다”(美) 梅龍, C. 高爾德史泰恩, 1988: 44). 이처럼 고위관직을

5) 귀족의 來源과 상층귀족의 구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吳從衆, 1991: 330).

6) 가문(噶倫): 옛날 티벳 지방정부의 일상 행정업무를 주관하는 최고관리로 권한이 매우 크다. 대부분 명문 귀족으로 충당되었다. 청나라 제도에 의하면 三品官이다. 1959년 이전 티벳 지방정부에는 6명의 噶倫이 있었다. 그 중 4명의 갈룬(索康, 多喀, 宇妥, 柳霞)은 1959년 라싸사건을 일으킨 지도자이다. 나머지 두명의 갈룬(阿沛, 桑頗)은 중앙정부를 옹호하고 라싸사건에 저항했다.

7) 4계층의 귀족 중 3번째 계층에 해당하는 15개 가족을 密扎이라 부른다. 이들의 조상은 공신으로 예컨대 噶倫과 같은 정부의 고위직을 담당했다.

차지하고 있는 가문과 부유층은 고위직을 독점했고, 그 고위직은 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보장하는 역할을 했다.

이런 상층귀족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티벳정권의 종교적 특성으로 인하여 몰수된 장원은 주로 귀족의 자산이었기 때문에 200여년 동안의 장원유동의 과정에서 귀족계층의 경제적 기반이 위축되었다. 20세기 티벳 귀족의 토지는 정부와 종교 계통(사원 및 拉讓)의 토지보다 적었다. 한 자료에 의하면, '1917년 티벳의 사원이 소유한 토지는 42%, 정부가 소유한 토지는 37%였고, 귀족은 단지 21%를 소유했다. 동시에 200호 정도의 귀족 중 많은 귀족들이 빈곤한 상태였다'(美) 梅龍. C. 高爾德史泰恩, 1988: 45). 몰락한 귀족들은 그들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할 수 없었다. 어떤 귀족은 정부의 어떤 특수한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심지어 의식에 필요한 복장이나 장식품을 살 능력도 없었다. 반면에 사원과 정부는 티벳 전체 토지의 약 80%를 소유하는 거대 영주로 변해가고 있었다. 티벳의 경우 정치 역시 승려계층에 의해 장악되었기 때문에 티벳은 사원이 모든 활동의 중심이었다고 볼 수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귀족들의 경제권은 약화되고 사원의 경제적 기반은 확대되었다. '1951년 이후 조사에 의하면 라싸의 대사원인 哲蚌寺는 185개 이상의 장원을 소유했고, 경지면적이 약 5,100畝에 달했으며, 3백여개의 목장을 소유하고 牧畜도 3만 마리 이상이었다. 농노와 牧奴는 합쳐서 약 2만 정도였다. 이런 재산 중 귀족이 보시한 것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吳從衆, 1991: 55).

이런 사원중심의 티벳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농노들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인무를 수행해야 했다.

1) 토지임대료(外差와 內差)

티벳 농노주의 토지는 自營地와 分與地로 구분되었다. 농노주의 농노에 대한 착취를 티벳어로 “차”(差)라고 하기 때문에 티벳의 농노를 티벳어로 “차바”(差巴)라 한다. 이는 “차를 바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분여지의 농노는 모두 무상으로 영주에게 노역(差)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티벳의 농노가 부담해야 하는 토지임대료라 할 수 있는 ‘差’는 외차(外差)와 내차(內差) 두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內差란 노동지대로 농노가 3대 영주의 自營地에서 무상으

로 일하는 것이다. 둘째, 外差는 노역·실물·화폐가 혼합된 지대로 농노가 관청에 노역을 제공하고 실물과 화폐를 납부하는 것이다. “外差”는 국가와 지방 정부에 부담하는 각종 노역이다. 일반적으로 이를 우라(“烏拉”)라 한다.⁸⁾(葉魯禾示, “西藏封建農奴制的初步分析”, 85). 매년 농노들이 外差와 內差의 형식으로 바쳐야 하는 부담은 농노들의 1년 전체 수입의 약 73%를 차지했다. 농노들은 이런 두가지 명목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착취당했다.

2) 고리대와 강매

농노주들은 위와 같은 다양한 방식의 착취 외에도 고리대로 농노들을 착취했다. 티벳 3대 영주는 모두 고리대금업자였다. 3대 영주 중 고리대를 가장 많이 놓은 것은 사원 영주였다. 사원의 고리대 비중은 티벳 3대 영주가 놓은 고리대 총액의 약 80% 정도를 차지했다. 사원 중 가장 많은 고리대를 놓은 것은 哲蚌寺였다. 哲蚌寺의 고리대는 티벳의 각 곳에 퍼져 있었고, 사원농노·정부농노·귀족농노 가리지 않고 빌릴 사람만 있으면 고리대를 놓았다(吳從衆, 1991: 71). 농노주가 농노를 착취하는 방법은 경제적 방법 외에 강제구매의 방법도 있었다. 강매는 일반적으로 하급 관리들이 사용한 방법으로, 인도나 라싸 등에서 많은 일용품을 싼값으로 사와서 자신의 관할 농노들에게 비싼 값으로 구매할 것을 강요했다. 예컨대 성냥 한 갑은 한 마리의 양이나 수십근의 양모와 교환되었다. 한 뭉치의 차는 소한마리나 말 한 필과 교환되었다(吳從衆, 1991: 334-335). 물건값은 년말까지 치루어야 했고, 년말에도 지불하지 못하면 이는 고리대로 변했다.

중국 중앙의 주장에 의하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영주에게 착취당했던 농노들이 1959년 『민주개혁』이후 해방되었다고 한다. 티벳사회는 1959년 이후 중국 공산당에 의해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었고, 봉건제 역시 붕괴되었기 때문이다. 중국정부에 의해 달라이라마는 종교적 지도자로만 역할이 국한되고 정치적 권한은 정부관리가 맡도록 한다는 정책이 강행되었다. ‘1959년 9월 소집한 회의에서 『봉건농노주의 봉건소유제를 폐지하고, 농민의 토지소유제를 실시하는

8) 농노들이 부담해야 했던 外差와 內差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牙含章, 1988: 57-64 참조.

결의에 관하여』가 발표되어, 정식으로 봉건농노소유제를 폐지하고 농민·목축민의 개체소유제를 실시할 것을 선포했다. 민주개혁후 공농상업에 대해서는 계획적 배급제도가 실시되었다. 중국정부는 식량 및 식용유(酥油)는 일괄구매 일괄판매제도를 실시하고 소·양고기·양모는 할당구매하도록 했다. 도시 주민의 식량과 식용유는 정량공급제를 실시했다. 민간용 차와 옷감 등은 배급표에 의해 공급했다'(吳健禮, 1995: 15-16). 이런 개혁에 의해 대영주였던 사원과 라마승의 재산이 몰수되었고, 티벳정부는 중국 중앙정부가 파견한 관리들에 의해 통치되기 시작했다. 1959년 이후 티벳이 중국 중앙정부에 의해 통치되기 시작한 후 시기별로 중앙의 정책변화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었다.⁹⁾

1959년 4월 라싸 사건이 진압된 후 북경은 달라이라마의 행정기구(티벳 지방정부)를 폐지하고, 티벳자치구준비위원회가 티벳정부 기능을 대체했다. 중국은 1959년 이후 본격적으로 티벳을 정치·경제·사회 면에서 사회주의사회로 개조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1961년 4월 『티벳 자치구 준비위원회』는 공산주의 사회로의 개혁이 기본적으로 완료되었다고 보고했다. 그 후 1965년 8월 티벳 자치구 제1회 인민대표대회가 열렸고, 65년 9월 1일 티벳 자치구가 정식으로 발족되었다(江平, 1991: 59). 이처럼 민주개혁으로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고 사원의 재산을 몰수하여 티벳을 사회주의화한 것은 사원과 라마승을 중심으로 통치되던 티벳적 전통의 중단을 의미했다. 중국공산당에 의해 티벳이 통치되면서 사원은 승려들을 부양할 능력을 상실했고, 종교활동도 사실상 불가능했다. 종교적 색채가 강한 티벳의 문화 역시 약화되었다. 따라서 『민주개혁』은 중국 정부의 시각에서 보면 '인민해방'이지만 티벳승들의 눈으로 보면 티벳적 색채를 지닌 문화를 위협하고 승려들의 특권적 지위를 박탈하는 대사건이었을 것이다.

9) 1961년 중앙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당의 정책은 이후 5년간 티벳에서 사회주의적 이행을 실시하지 않는다. 농목업 합작사 및 인민공사도 설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티벳 역시 문화대혁명기의 정치풍파 속에서 인민공사가 만들어졌다. '1966년 50여개 인민공사가 건립되었고, 1974년 에야 90%, 1975년 93%의 도시에서 인민공사가 형성되었다. 내륙에 비해 이처럼 인민공사화가 늦었던 것은 티벳인민들의 인민공사화에 대한 저항이 강했기 때문이다'(A. Tom Grunfeld, 1990: 260). 1980년대부터 개혁개방정책이 실시되면서 티벳지역에도 변화가 발생했다. 1980년 농목업 지역에 包產到戶와 包干到戶가 실시되었고, 1984년 인민공사가 폐지되고 각 村과 鄉에서 재산을 관리하도록 했다. 가격개혁에 의해 1994년 이후 가격도 시장에 의해 결정되었고, 대내외개방이 확대되었다.

민주개혁이 사원경제에 미친 영향을 보여주는 보다 구체적인 사례로 四川省의 두 縣 변화는 다음과 같다. 1956년초 통계에 의하면 당시 四川省 甘孜, 德格 두 縣의 사원은 79개였고, 승려가 그 현 전체 인구에서 점하는 비율은 德格이 24% 이상이고, 甘孜는 33% 이상이었다. 그러나 1956-59년 민주개혁 후 두 지역의 사원은 79개 중 6개 사원과 소수 승려만이 남았고, 토지를 몰수당했다. 德格縣 57개 사원 중 1986년 토지가 있는 사원은 단지 16개 사원이고 모두 합쳐 단지 152畝이다. 甘孜縣은 50% 이상의 사원이 토지가 없다. 민주개혁 전 소유한 토지가 2,000畝가 넘었던 大金寺는 현재 전혀 토지가 없다. 더구나 문혁 기간동안에는 많은 사원이 문을 닫았고 승려들은 강제적으로 환속했다(楊健吾, 1988: 29-31). 민주개혁이전 大金寺라는 한 사원이 소유한 토지가 2000畝가 넘었는데 1986년 德格縣의 전체 사원이 소유한 토지는 단지 152畝라는 것이 사원의 경제권 상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티벳의 山南지역을 예로 들어 민주개혁 전후의 사원경제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지역은 티벳 남부의 농업위주의 지역으로 1959년 민주개혁시 12개 縣, 인구 15만명 정도이고 주민의 97% 이상이 藏族이었다. 산남지역은 경작지 중 귀족이 약 21%, 西藏政府가 35%, 사원이 44%를 소유했다(中央西藏山南地委黨史征集辦公室(1), 1991: 25). 사원은 山南 최대의 영주이고 고리대금업주였다. 사원은 전지역 영지의 43%와 목장과 가축을 소유했다. 산남에는 크고 작은 절이 428개(僧寺 287, 尼寺 141) 있었고 승려는 12,050명(僧 9745명, 尼 2305명)였다.

산남지역에서 사원에 대한 민주개혁은 첫째, “三反三算”(반란 반대, 봉건적 특권 반대, 착취 반대, 정치적 박해 청산, 계급억압 청산, 경제적 착취 청산)운동이 있었다. 둘째, 토지개혁을 실행하여 농민개체소유제로 전환했다. 민주개혁 후 50% 이상의 승려들이 환속을 택하여 절에 남은 승려는 12,000여명 중 단지 500여명이었다. 또한 남은 승려들은 종교활동 외에 생산에 종사해야 했고, 매주 정치학습을 통해 공산당의 정책을 학습해야 했다(中央西藏山南地委黨史征集辦公室(2), 1991: 140-141).

티벳 전체적으로 승려와 사원수의 감소를 보면 민주개혁이 사원중심의 티벳 사회를 얼마나 변화시켰는지를 잘 알 수 있다. 1959년 티벳자치구의 사원은

2,469개, 티벳승(승려+비구니)은 11만명이었으나 단지 1년 후 사원은 1,700여개로 감소하고 승려와 비구니는 56,000여명으로 약 50% 정도가 줄었다. 승려수의 급감 이유는 10%는 도피한 것이고, 기타 사람들은 사원을 떠난 것이 아니라 1959년 라싸사건때 시위에 참가한 죄명으로 감옥에 갇힌 것이다. 호조조가 농산품을 분배할 때 사원에 충분한 양을 공급하지 않았고, 사원을 떠나는 승려에게는 장려금과 물질적 혜택을 제공한 것도 승려 수 감소의 한 요인이었다(A. Tom Grunfeld, 1990: 258-259).

민주개혁이전 티벳은 사원과 라마 중심의 사회였다. 1959년이전 티벳 사회는 마치 서양의 중세사회를 연상시키듯, 종교적 지도자가 정치적 권력을 장악하고, 사회 전체를 통치하는 일종의 제정일치의 사회였다. 그런데 1959년 티벳이 중국에 병합되면서 사원들이 경제적 기반을 상실하게 되었다. 비록 개혁 후 중앙정부가 문혁기와 달리 종교적 자유를 허용한다할지라도 사원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전통이 형성되었던 티벳의 특징이 부활되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종교를 중심으로 생활하는 티벳인들의 눈으로 보면 사원의 재산권 회복없는 전통의 보호나 신앙의 자유, 민족의 정체성 유지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민주개혁 이후 95%를 차지하는 티벳 인민이 기본적인 인권과 진정한 종교의 자유를 획득했다.”고 주장한다. 중앙의 논리에 의하면, 민주개혁 후 봉건제가 폐지되어 농노들은 농노주의 인신적 속박에서 해방되어 생산수단과 토지의 소유자가 되었다. 민주개혁은 진정한 의미에서 티벳 인민의 인권을 실현했다. 이전에는 귀족과 승려 등 상층계급만이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90% 이상의 일반 평민은 문맹이었으나 민주개혁 후 국가는 티벳에 무료교육제도를 실시하고 학교를 세워 해방된 농노의 자녀들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다. 종교적으로도 티벳 인민들의 신앙은 “사적인 일”로 되어 진정한 종교적 자유를 얻었다(孔 霞, 1991: 59).

민주개혁 이후 소수 승려계층의 특권은 폐지되었으나 90% 이상의 티벳인들은 인권을 되찾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혜택을 받게 되었다는 중앙의 주장이 맞다면 1987년 이후 계속되는 티벳독립시위는 어떻게 설명되어야 하는가? 중앙의 주장이 티벳의 현실이라면 티벳인들이 독립을 지지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비합리적 선택이다. 과연 티벳인들이 경제적 혜택을 포기하면서까지 종교적 자

유를 회복하려고 하는 것일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 이하에서는 중앙의 재정지원정책과 티벳에 대한 종교·문화적 통제완화가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3. 개혁기 중앙정부의 티벳정책 및 효과

1) 재정지원정책

중앙정부의 소수민족정책은 “分離不許, 當家作主(한 지역에 살아온 그 지역 소수민족이 그 지역의 주인)”원칙이다. 이 원칙에 의하여 개혁기에도 중앙은 티벳인들의 종교·문화적 자율성은 인정하되, 중국으로부터의 정치적 독립은 단호히 금지하고 있다. 개혁기 중앙정부는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고 티벳인들의 자치비중을 높이고 종교활동의 자유를 허용하는 등 점진적인 동화정책을 택하고 있다. 이런 온건한 정책을 통해 중앙은 중국에 대한 티벳인들의 저항적 민족감정을 완화하려 하고 있다. 그러면 중앙의 재정적 지원이 티벳 경제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중앙의 재정지원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티벳인들이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가?

중앙정부는 가난한 省 티벳자치구가 재정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운동이 현실성을 결여한 종교적·민족적 감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의 근거가 되는 중앙의 재정지원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52-1989년 사이 중앙정부는 티벳에 매년 10억원을 재정보조했고, 그 액수를 1인당 평균으로 계산하면 전국에서 가장 높다. 또한 티벳 인구의 3/4이 농업과 목축업에 종사하나 전지역에서 1인당 매년 3개월분 식량을 외부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매년 티벳에 식량도 보조하고 있다. 재정상으로도 1992년 중앙정부가 티벳에 준 재정보조는 전국 인구 1인당 연평균 644원이고, 이 액수는 1992년 1인당 농민 평균 순수입 630元보다 많은 것이다(孫競新, 1994: 63).

中國政府는 개혁기 티벳인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함으로써 티벳인들이 중국 정부에 호의적일도록 노력해 왔다. 北京當局은 티벳인이 매년 中央政府에 납

부해야 할 세금을 면제해 주고 經濟 沈滯을 구제할 지원금을 2억 달러에서 3억 달러로 확대시켜 주었다. 중국정부는 티벳에서 “市場經濟”를 실시하였고, 티벳 기업들과 中國의 기타 도시 기업들 간의 합동 프로그램을 승인해 주었다 (Bowers, Stephen, 1994). 이런 중국 중앙의 티벳 지원 상황만을 보면 티벳이 경제적으로 중앙정부에 의존적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경제적 지원 외에도 중앙정부는 티벳에서 1988년과 1989년의 폭동이 있은 후 티벳인과 한족과의 원활한 교류를 통한 관계개선을 시도한바 있다. 1989년 티벳 공산당 서기로 부임한 胡錦鵬(Hu Jintao)는 45세 미만의 모든 漢族 관리들에게 의무적으로 티벳語를 배우도록 명령했다. 수많은 自治 政府 부서는 사무실에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나질 동안 티벳語를 가르치기 시작했다(Huang, Yasheng, 1995). 중앙정부는 강압적으로 티벳인들을 중국화하려던 문혁시기와 달리 개혁이후 티벳에 대해 점진적인 동화, 티벳인들의 자발적인 중국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중국 당국은 경제적 지원과 티벳인들의 전통적인 생활습속과 종교활동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과 티벳인의 사적 생활의 자율성 확대를 통해 티벳인들의 독립의지를 약화시켜 이들을 점차 중국화할 수 있을 것인가? 중앙의 티벳정책이 중앙의 의도대로 티벳인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그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티벳주민들에게 어떤 과정을 통해 분배되고 티벳인들이 얼마나 혜택을 받는지,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어떤 분야에 투자되었는지를 살펴보자.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은 대부분 정부조직의 인건비와 사회간접자원 건설에 사용되었고, 티벳인들의 80%를 차지하는 목축민이나 농민에 대한 보조 비율은 매우 낮다. 중앙의 재정지원은 티벳인들의 직접적인 생활향상에 사용되기 보다는 포탈라궁이나 사원 수리, 인민정부 건설, 행정직원의 급여, 도로 확장 및 보수 등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경제적 지원은 중앙정부가 티벳을 보다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행정적 비용의 성격이 강했다. 물론 1954년 青海省과 티벳자치구를 연결하는 淸藏公路가 개통되고 四川省과 티벳자치구를 연결하는 川藏公路가 개통된 것은 장기적으로 티벳인들에게 경제적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중국 중앙정부가 티벳을 통치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을 확보하게 된 것이기도 했다. 한 예로 중국정부는 이 도로를 통하여 1959년 인민해방군을 보낸 바 있다.

개혁전 중앙정부 재정지원이 티벳지방정부 재정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사실이나 그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중앙의 재정지원이 티벳인들의 직접적인 생활향상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시기별 중앙의 재정지원비의 사용내역을 보면 58년 이전에는 주요 도로건설사업 때문인지 약 70% 정도가 기본건설과 행정관리비에 사용되었고 그 후에도 전체 중앙지원비의 50% 이상이 이 부분에 사용되었다. '1952-1958년 사이 티벳 지방정부 재정 수입 중 중앙재정 보조수입이 91%를 차지했다. 재정지출 중 기본건설지출이 32.8%, 행정관리비가 37.6%를 차지하고, 문교위생사업비 17%, 농목업 지원 및 공사업 지원 지출은 5% 미만이었다. 1959-1965년 사이에도 중앙 재정보조는 전체 티벳 지방정부 예산의 69%였다. 그러나 재정지출 내역을 보면 기본건설 지출 31%, 기업 유동 자금 지출 16%, 공사업 및 무역지출 11%, 행정관리비 지출이 20%이다. 문혁기(1966-1976)에는 재정지출 중 기본건설비가 38%인데 반하여 사회복지비지출은 0.11%. 문교위생비 지출은 12%에 불과했다'(吳健禮, 1995: 77-79). 또한 1952년-1984년까지 서장의 재정지출구성을 보아도 농목업에 대한 지원은 전체의 15%에 불과하다. '1952-1984년까지 30여년 동안 중국의 티벳에 대한 재정보조 중 28%가 기본 건설에 사용되었고, 행정관리비가 16%, 농업과 목축업 지원비가 15%, 문교위생사업비가 13%였다'(王大森, 1998: 25-26). 이런 시기별 자료를 기초로 볼 때 중앙정부는 195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티벳을 재정지원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중앙의 재정지원은 그 사용에 있어서 티벳인들의 직접적인 생활향상을 위한 사회복지비나 농목업 지원비의 비중은 극히 적었기 때문에 티벳인들을 중국정부에 우호적하도록 하려는 경제적 지원의 효과는 성공적이지 못했다.

개혁후 중앙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티벳에 재정적 지원을 할 것을 약속했다. 1984년 4월 중앙은 1985년 티벳독립 20주년을 기념하기위해 티벳에 인민폐 47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중앙과 북경, 상해, 산둥성, 복건성, 사천성, 절강성, 강소성 등 9개 省, 市가 공동으로 티벳의 43개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Inland Helping Tibet," Beijing Review, 10 Sep. 1984, 8). 1994년 1월에

는 중앙 관련부문과 전국 각 省과 自治區가 공동으로 투자액이 23億元에 달하는 티베트의 62개 항목의 사업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吳健禮, 1995: 22). 개혁기에 강조되고 있는 위와 같은 경제적 지원이 티베트인들의 직접적인 생활향상에 얼마나 도움을 줄지는 의문이다. 과거 중앙정부가 티베트에 제공한 재정보조의 대부분은 행정사업경비로 사용되었고 생산성 투자로 사용된 부분은 극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개혁후에도 중앙의 재정지원은 주로 비생산적인데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티베트인들의 실질적인 소득향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예컨대 개혁기 티베트의 행정관리비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王大犇, 1998, <表 3> 참조). 기본건설비에서도 비생산적 부분에 지나치게 투자되고 있다. 1984년 티베트과 전국의 기본건설 투자비구성을 살펴보면, 티베트는 생산성 투자비중이 31.5%, 비생산성 투자비중이 68.5%였다. 반면에 같은해 전국평균을 보면 생산성 투자는 60%, 비생산성 투자는 40%였다(王大犇, 1998: 27, <표 4> 참조).

위의 통계수치 외에도 다음과 같은 지적은 중앙의 재정지원 중 상당부분이 티베트인들의 생활개선보다는 간부들의 편의시설을 확충하기위한 소비부문에 사용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앞으로 티베트의 기본건설은 관광사업 발전을 위한 호텔, 여관 및 오락시설을 제외하고는 기타 비경제적인 건물 건축에 사용되는 것을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 1986-88년 사이 티베트의 적지 않은 단위는 사무실 면적이 갈수록 커지고 내부시설을 바꾸고 수리하는데 많은 경비를 사용하는 낭비현상이 발생했다. 국가의 티베트에 대한 경비보조는 주로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인재양성에 사용되어야 한다’(王大犇, 1998: 26).

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중앙의 재정지원은 1차 산업지원이 아니라 행정경비와 사회간접자본건설, 관광업 발전 등에 주로 투자되고 있다. 이런 투자로 도로가 건설되고 교통이 편리해지면 외지와의 교역이 활발해질 것이고, 관광업 발전과 함께 관광도시의 상업이 발전하면 티베트인들의 소득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효과가 티베트인들에게 나타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하에서는 티베트인의 취업구조, 다른 지역과의 교역의 효과, 도시개발의 혜택 등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첫째, 티베트인들의 직업 분포를 비교해 보면 중앙의 지원이 티베트인들에게 경

제적 혜택을 베푸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90년 티벳의 취업분포를 보면 1차산업 80%, 2차산업 5%, 3차산업 15%이다'(多杰歐珠 外, 1993: 16). 티벳인들은 80% 이상이 농목임업 등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3차 산업 종사자들의 비율이 15%이나 이들은 상업이나 서비스업이 아니라 대부분 티벳승 등 종교 계통 종사자들이다. 이런 티벳인들의 취업구조를 고려한다면 중앙의 경제적 지원에 의한 도시의 관광산업 발전이 대부분 티벳인들의 생활 향상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개혁기 중앙의 재정지원이 농목민이 대부분인 티벳인들의 직접적인 생활향상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다.

티벳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농촌지역과 도시의 평균 소비액 차이를 보아도 도시와의 지역에서 목축업에 종사하는 티벳인들이 개혁기 경제발전의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티벳지역의 도시주민과 농민의 평균소비액 차이는 약 5배(도시 3,176 농촌 585)이상으로 다른 지역보다 그 차이가 심하다. 다른 지역의 도시민과 농민의 평균 소비액 차이를 보면, 상해나 북경은 약 2배, 소비수준이 낮은 같은 서부지역의 감숙성은 약 4배, 청해성은 약 3배이다(한홍석, 1997: 178 <표 4-1>참조). 티벳이 중국에서 가장 빈곤한 省이지만 상대적으로 도시주민의 소비수준은 농민에 비해 높은 이유는 몇 개 도시가 집중적으로 개발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티벳이 중국에서 가장 빈곤한 省인데 도시와 농촌의 격차마저 크다는 것은 티벳 농목민의 생활수준이 어떠한지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둘째, 티벳지역의 교통이 편리해지면서 외지와와의 교역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교역을 통해 티벳인들이 어떤 이익을 얻게 되는가? 드라이어는 중국과 티벳의 교역이 원료와 공산품 가격차에 의한 불균등 교역이기 때문에 잉여가치가 티벳에서 중국 지역으로 유출된다고 한다. 대부분 소수민족 지역은 한족지역(연해지역)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원을 생산하고 소수민족은 한족이 생산한 공산품을 구매한다. 그런데 원료와 공산품 간의 불평등교환으로 인하여 소수민족지역인 주변(서부지역)에서 한족 집중지역인 중심(동부지역)으로 잉여이동이 발생한다(Dreyer, 1992: 257). 이런 논리를 티벳에도 적용하면 개혁기 방으로 외지와 교역이 활발해지면 티벳의 농목산품은 낮은 가격으로 팔리고

티베트인들은 비싼 가격으로 공산품을 구매하는 불균등교환이 발생하여 티베트인들이 잉여를 착취당하게 된다. 특히 중국정부는 개혁이후 인플레이를 우려하여 1차 상품의 가격은 억제하고 최종소비재의 가격만 자유화했다. 그런데 1980년대 중반 이후 도시의 인플레이로 인하여 공산품의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에 80% 이상이 주로 농목민인 티베트인들의 부담이 더욱 커졌다. 농목업에 종사하며 1차 상품을 생산하는 티베트인들은 외지와의 교역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기 보다는 내지 공업발전을 위한 저렴한 원료생산(예컨대 양모, 목재, 양)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중앙의 재정지원 규모만을 강조하게 될 경우 중앙의 재정지원이 과대평가될 소지가 있다.

셋째, 중앙의 재정지원은 라싸와 같은 도시개발에 사용될 것이다. 그런데 도시발전의 결과 주로 농목업에 종사하는 티베트인들이 얼마만큼 혜택을 받게 될지는 의문이다. 티베트의 대표적 발전 도시인 라싸의 경우 藏族과 漢族 인구구성을 보면 통계자료보다 실제 거주 한족의 비율이 훨씬 높다. 라싸의 경우 상업과 관광사업 발전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티베트 이외 지역(內地)에서 온 漢族일 가능성이 크다. 라싸는 티베트에서 상대적으로 인구밀도가 높은 티베트지역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라 할 수 있다. 라싸는 130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고도이고, 해발 3,650미터이며 1951년 이전 인구는 3만이 었다. 1993년 호적인구는 약 13만명이고, 평상시 인구는 유동인구를 포함하면 20만 정도이다. 1993년 티베트 전지역 도시 호적인구가 약 38만명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라싸에 도시 호적인구의 1/3 정도가 거주하고 있고, 라싸의 실제 거주인구는 티베트 전체인구 200만의 1/10 정도이다. 1997년 여름 현지조사에 의하면, 라싸 인구는 공식통계로는 티베트 장족이 절대적 수이지만 이곳에 정식 혹은 임시적으로 거주하며 경제활동을 하는 한족은 라싸의 경제활동 인구의 50% 이상이다. 한족의 직종은 전문직 기술직, 행정기관 간부, 운수업, 상업 등으로 비교적 수입이 높은 직종이다.

이런 상업인구의 구성과 라싸의 한족 비율을 볼 때 개혁 이후 중앙정부의 경제적 지원이 주로 라싸 지역에 집중되었다면, 그 혜택의 수혜자는 전체 장족이기 보다는 라싸 주민이고, 특히 라싸에서 주로 상업활동하는 한족을 중심으로 한 내지인들이 혜택을 받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위의 추측을 확인하기 위

해 라싸에 거주하는 한족의 분포와 그들의 직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0년 인구센서스에 의하면 티벳 총인구는 219.6萬이고 그 중 장족은 209.5萬으로 95.5%이고 한족은 8.1萬으로 3.7%이다. 전체 티벳인구에서 한족인구의 비율은 적으나 한족은 도시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의 한족인구 비율은 높은 편이다. 티벳 자치구의 한족인구는 1952년 이후 들어 온 사람들이다. 그 중 대다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장족 지원의 각 건설사업의 간부, 전문기술자, 노동자 및 그 가족들이다. 한족의 50%(당정기관, 기업과 사업단위의 간부)가 라싸에 거주하고, 장족은 4.6%만 라싸에 거주한다. 한족은 행정기구가 집중되어 있는 라싸 시와 6개 행정도시 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다.(孫競新, 1994: 58). 따라서 1990년 티벳에 공식적으로 거주하는 한족은 약 8만명에 불과하지만 라싸 지역의 한족은 약 4만명으로 라싸 전체 호적인구 13만 중 약 30%에 해당된다.

그 외에 한족 중 등록되지 않은 임시거주인구가 상당 부분 라싸에서 경제활동을 한다. 라싸의 유동인구는 라сса가 본격적으로 관광지로 개발되기 전인(라싸는 1992년 이후 외국인 관광이 자유로와짐) 1985년에 이미 全市 상주인구의 50% 이상이다. 티벳 자치구 공안부 통계에 의하면 1985년 6월 라싸지역의 임시거주 인구는 6만으로, 全市 상주인구의 50% 정도이다. 이들 대부분은 내지에서 온 상인, 수공업자, 공사장 노동자, 외지에서 온 예불자 등이다(孫競新, 1994: 60). 1990년대 들어와 상업과 관광업이 급속히 발전했으므로 유동인구 역시 더욱 증가했을 것이므로, 1998년 현재 라싸 유동인구는 상주인구 보다 많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유동인구 중 상당수가 티벳 이외 지역에 온 외지인일 것이다.

유동인구와 도시발전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개혁기 상업 및 교통운수업을 중심으로 티벳 이외 지역 개체호가 티벳으로 대량 유입되었다. 外地 개체호들은 주로 라싸와 縣, 地(市)政府 소재지에 분포해 있고, 감숙, 청해, 사천, 절강 등 4개 省에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내지의 산업종, 신제품 및 경영방식을 티벳에 들여오고 있다. 외지 개체호들은 수리업과 노점상 외에 점차 노동자를 고용하여 경영하고 장거리 운송업과 상업 및 음식업 부문에서 사영기업의 형식으로 발전하고 있다(庄永福, 1990: 13). 한족은 농업에 종사하더라고 수

익성이 높은 도시근교농업을 하고 있다. 한 예로 최근 한족 중 1차산업 종사자가 2.3%에서 3.4%로 약 7천여명이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 수익성이 높은 근교 농업이다. 한족 농민은 라싸 근교에서 장족 임대지에 채소를 경작하여 라싸 도시주민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런 도시의 상황을 보면 개혁후 티벳의 도시들이 개발되면서 티벳 장족이 아닌 외지인들이 라싸를 중심으로 상업 및 음식업, 운수업 방면에서 주도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자발적으로 유입된 임시거주 인구는 공식적인 인구조사에서는 누락되기 때문에 라싸의 개발이 티벳인들의 생활향상으로 이어진다고 생각되기 쉽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중앙의 재정지원에 힘입어 도시가 개발되어도 농촌에 거주하는 대다수 티벳인들은 그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혁 이후 라싸와 같은 도시개발과정에서 藏族들이 상대적으로 배제되고 있다는 것은 상업이나 관광업발전으로 보다 높은 소득을 기대하고 몰려드는 內地인들이 급증하고 있지만, 라싸의 장족 청년들은 심각한 실업상태에 처해 있음에서도 알 수 있다. '1988년 티벳 조사시 라싸 舊도시(주로 藏族이 거주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장족 청년들이 중학 혹은 고교 졸업 후 미취업상태였다. 라싸 구도시 8호당 적어도 한명은 직업 배치를 기다리는 청년 실업자였다'(江平, 1991: 49). 라싸 구도시 주민 중 38.5%는 무직자이고, 단지 40%만이 임금을 받고 행정, 경제조직의 관할하에 있었다(孫競新, 1994: 62).

위의 3가지 고찰을 기초로 볼 때 중앙의 경제적 지원정책은 티벳인들에게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티벳인들은 경제적인 불만이 누적되어 왔다. 티벳인들은 중국인들이 관청과 경찰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고 商權도 장악하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1987년부터 시작된 시위에서 많은 시위자들은 연료나 기본 생활 필수품 가격의 인상으로 인한 經濟的 궁핍을 항의한 바 있다. 1989년 라싸 시위는 중국의 티벳에 대한 유화정책이 성공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1989년 티벳에서 왜 시위가 발생했는가를 보면 중앙의 경제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티벳인들은 중국에 동화되기 보다는 중앙의 티벳정책에 불만을 가지고 있고 기회가 오면 독립을 요구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1989년 시위 원인은 그동안 누적되어온 티벳인들의 불만이 폭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첫째, 중앙정부는 1959년 이후 목축업을 주로 하는 티벳에 집단농장제를 도입했고, 그동안 재배되던 보리 대신 새로운 고산작물 재배를 강요했다. 이런 무리한 정책은 티벳에 대규모 기근을 유발했다. 둘째, 문혁기간 중 종교탄압으로 많은 사원이 파괴되어 티벳인의 민족적 자존심을 자극했다. 셋째, 개혁이후 등소평의 회유정책하에서 대규모 경제지원을 약속했으나 2배의 봉급조건으로 한족의 티벳 이주를 권장하여 티벳인들의 對중국 불신감 조장했다’(『한국일보』 1989/3/8).

개혁기 티벳 도시의 상업과 관광업의 발전에 대한 티벳인들의 시선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1980년대 이래 四川省에서 온 청년층의 가난한 농부들이 관광산업과 기타 地方 産業에서 한 몫을 잡으려고 티벳 도시로 몰려들었다. 따라서 티벳인들은 자신들의 전통적인 生活方式이 자전거, 구두수선소, 외국인을 위한 식당, 인력거, 술집, 댄스홀 등으로 파괴될까봐 두려워하고 있다. 漢族 移住民이 대부분 이러한 新規 事業을 운영하고 있는 티벳 地方 도시들에서도 티벳 民族은 자신들의 特性을 상실할까봐 두려워한다. 특히 수많은 신규 漢族 사업가들이 부당하게 價格 引上을 하여 티벳인들은 자신들이 약탈당하고 있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다. 이런 漢族 商人들의 지나친 가격 인상에 대한 불만이 導火線이 되어 1993년 5월 漢族의 독점에 대한 격렬한 暴力 示威가 5일간이나 지속되었다. 수 천명의 시위자들과 인민해방군 간의 충돌로 수많은 사람들이 체포되고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Bowers: 1994).

이상에서 중앙의 재정지원 정책이 티벳에서 어떤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검토했다. 이를 통해 중앙의 주장과 달리 80% 이상의 농목업에 종사하는 티벳인들이 중앙의 경제적 지원정책의 실질적인 수혜자들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중앙의 재정지원은 중앙이 티벳을 보다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정치적 비용’의 의미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국 중앙정부의 지원결과 티벳인들이 경제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부 승려들의 독립운동에 동조적이지 아닐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그 반대의 결론도 도출할 수 있다. 중앙이 끊임없이 재정지원을 통한 경제발전을 선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생활은 크게 향상되지 않는 것을 경험해 온 티벳인들은 경제적 지원에 대한 기대를 버리게 되고, 오히려 티벳독립을 통해 종교적

전통과 문화의 강화, 더 나아가 중국인이 아닌 西藏人으로서의 자신을 확인하는 민족독립을 지지할 수도 있다.

이하에서는 중앙정부의 티벳정책완화가 티벳내에서 어떤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개혁기 중국정부는 티벳소수민족에 대한 종교·문화정책을 완화하여 티벳인들이 중국정부에 호의적이도록 노력해 왔다. 이런 중국정부의 정책이 티벳인의 시각에서 보면 티벳인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일까? 개혁기에도 티벳이 중국의 통치하에서 점차 티벳적 전통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달라이라마를 중심으로한 독립주의자들의 주장은 왜 제기되고 있는 것일까?

2) 藏族에 의한 티벳 중국화--교육정책 및 간부정책

문혁이전에는 소수민족 간부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사회주의사상(紅)으로 무장하고 전문기술(專)을 겸비한 소수민족 간부를 양성하기 위해 북경에 중앙민족학원을 만들고, 西北과 西南 등에 중앙민족학원 分院을 설치하고 각 省에는 민족간부학교를 설립했다. 그러나 문화대혁명 기간동안 소수민족간부들은 『외국과 내통한자』, 『첩자』, 『走資派』 등의 죄명으로 숙청당했고 소수민족간부 양성학교나 훈련반이 폐쇄되었다. 이로 인해 소수민족 간부의 수가 격감하고 대부분 주요직은 漢族으로 대체되었다. 1978년 개혁이 시작된 후 소수민족간부 양성이 다시 강조되기 시작했다. 이런 소수민족간부정책의 변화에 따라 티벳도 장족간부가 양성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달라이라마는 개혁기 소수민족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티벳의 독특한 종교문화적 유산이 파괴되고 전통문화가 말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라디(티벳인민대표회의 상임위원회 의장)는 “개혁기 전통적인 티벳문화는 잘 보전되고 있다. 티벳어로 책과 잡지가 출판되고 방송이 가능하다. 티벳학은 지금 200명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연구중이다. 현재 티벳에는 종교활동의 장소가 1,400개 이상이고, 승려도 3만으로 증가했다”고 반박했다(Radi On Tibet, 1994: 4). 라디의 주장처럼 개혁기의 유희정책은 중앙이 티벳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사실 중앙정부의 티벳에 대한 간부충원정책은 文革期에 비해 상당히 완화되

었다. 문혁기 한족 간부를 파견하여 티벳을 통치하던 방법을 변화시켜 1979년부터 티벳에 거주하던 간부와 기술자를 내륙으로 이동시키고 점차 장족 간부를 통해 티벳을 통치하도록 했다. “1978년 이후 중국 중앙정부는 장족 및 소수민족 간부를 적극적으로 양성하여, 자치구의 縣級 이상의 당정기관은 점차 장족간부 위주로 대체할 것을 지시했다”(江平, 1991: 70). 이런 정책변화의 결과 티벳은 장족 간부 위주로 변화되고 있다. 상당 부분의 소수민족간부는 당정기관과 자치구 각 부문의 지도급 간부로 활동하고 있다. 1988년 통계에 의하면 티벳에서 장족 간부는 3.7만으로 전티벳지역 간부 총수의 67%이고, 그 중 自治區一級 장족 간부는 72%이다. 티벳자치구 각급 인민대표대회, 정부, 정협,의 주요 지도급 간부는 장족 간부가 담당하고 있다(江平, 1991: 72). 장족간부의 비율만 보면 티벳은 다른 소수민족지역에 비해 상당히 높다. 그러면 장족 간부의 증가로 티벳이 티벳인에 의해 자치적으로 통치되고, 이들의 전통과 문화가 보호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중앙정부는 간부정책을 변화시키는 대신 藏族 간부에 대한 중국식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중앙은 장족을 북경이나 천진 등 漢族 거주지역에 불러 漢族文化를 습득하고 사회주의사상 교육을 시킨 후 티벳지역 간부로 파견한다. 중앙은 간부정책 변화로 티벳인을 통해 간접적인 통치를 하지만 교육을 통해 티벳의 문화를 통제하고 있다. 젊은 지식인들이 북경이나 기타 내륙 지역 학교에서 중국식 교육을 받고 티벳으로 돌아가 지식인 집단을 형성하고 간부가 된다. 이들이 비록 장족일지라도 이들에 의해 형성되는 문화는 장족적이기 보다는 오히려 한족적 경향이 강할 수 있다. 마치 현대화의 과정에서 거의 모든 동양사회가 서구의 문화와 사고에 동화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티벳 역시 점차 티벳 출신 지식인들에 의해 중국문화에 동화될 것이다. 중국은 한족을 통한 강제적 방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티벳인을 통해서 문화적으로 티벳을 중국에 편입시켜가는 정책을 택하고 있다. 심지어 현재 티벳의 중앙정부 산하기관에서 간부로 일하는 이들 중 일부는 티벳독립을 지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득권과 티벳독립이 모순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혁 후 한족 출신 간부의 비율이 줄고 티벳인 간부 비율이 높다고 해서 티벳 통치의 자치성이 높아졌다고 보기는 힘들다.

간부정책의 변화를 보완하는 것이 교육정책이다. 중앙은 자치구 내에 초중 학교를 만드는 외에 전국 17개 省과 市の 중학교에도 티벳반을 만들고, 티벳중학을 창설했다. 1989년 현재 내지에 3개의 티벳중학이 있고, 105개의 티벳반이 있어 약 8,000여명의 장족 청년이 무료교육을 받고 있다.¹⁰⁾ 이들 교육기관은 티벳지역 장족간부가 배출되는 중요한 통로이다. 또한 중앙은 티벳인을 한족문화에 적응하도록 교육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도 하고 있다. 중앙과 학교설립 관련 省과 市가 1985-87년 공동으로 티벳인 교육을 지원한 경비는 7,450만 원이었고, 그 중 중앙이 4,000만 원을 지원했다. 陝西省 인민정부에 의하면, 1988년부터 매년 한 중학교에 40만 원의 경비를 지원하여 400여명 티벳 학생이 연평균 1인당 1000원을 보조받고 있다.(多杰才旦, 1991: 157).

중앙정부가 왜 경비를 보조하면서 내지에서 장족 간부를 양성하여 한족 간부 대신 배치하고 있는가? 다음과 같은 교육과정을 보면 장족 간부의 비율이 높아간다고 해서 티벳의 정치적 자율성이 증가하고 전통문화적 일체감이 보호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을 알 수 있다. 內地 도시에서 교육받는 티벳출신 간부들은 어릴 때부터 고향 방문을 제한당한 채 중국문화지역에 장기체류하면서 주로 漢語로 교육받는 과정을 통해 중국문화에 동화될 것이다. '북경시 티벳 중학의 경우 교사는 266명이고, 학생은 700여명이다. 학생은 자치구에서 매년 시험을 통해 11-14세 사이의 우수한 티벳학생 100명을 선발한다. 이들 학생들은 중학교 졸업 전에 티벳에 휴가나 친척 방문이 불가능하다. 졸업 후 대부분 학생들은 전문학교나 기술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한다. 약 20% 정도의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본교 고등학교에 입학한다. 약 3년에 한 번씩 친척방문이 가능하다. 티벳 중학에서는 전국 통일적인 교재를 채택하고 있고, 漢語를 사용하여 교육하고, 추가로 티벳어 수업을 받는다'(多杰才旦, 1991: 159-160).

북경 티벳반의 역할은 첫째, 티벳인들을 親中國的으로 만들고, 한족문화에 적응시키는 과정이다. 둘째, 티벳 학생들에게 사회주의 사상 교육을 시키는 것

10) 1985년 9월 서장의 7개 市の 1,301명 장족 초등학교 졸업생이 사천, 운남, 상해, 강소, 절강, 안휘, 산둥, 하북 등 16개 省과 市の 17개 중학에서 공부하게 되었다. 1987년 北京, 重慶, 蘭州 등 3개 서장 중학에서 학생을 모집했다. 1989년 9월 말 서장은 이미 내지 21개 省, 市에 5팀으로 나누어 장족과 기타 소수민족 학생 7,700여명을 보낸 바 있다. 그 중 서장어 학습반 졸업생은 70%에 달했고, 1988-1989년 이미 제2기 중학 졸업생 2500여명이 21개 省 市에 있는 전문기술 학교에서 학습하고 있다(多杰才旦, 1991: 157).

이다. 민족간부를 양성하는 목적은 그들의 전문기술 수준을 높이고 맑스-레닌 주의사상과 모택동 사상을 학습시키고 당의 전통을 교육하는 과정이다. 다음과 같은 교육효과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학교에서는 신입생들을 조직하여 북경의 명승고적, 毛主席 기념관, 천안문의 국기게양식, 인민해방군 사열 등을 참관하게 하면, 그들은 이를 통해 조국에 대한 애국심을 느끼고, 사회주의 교육에 대한 애정과 안정적 정서를 형성하게 된다’(多杰才旦, 1991: 160). 티벳인들의 취학률이 낮은 점을 고려할 때¹¹⁾, 비교적 많은 수의 학생들을 이처럼 티벳 밖에서 중국식으로 교육하는 것은 장래에 티벳의 문화적 전통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된다.

개혁이후 간부정책과 교육정책 외에 종교신앙의 자유정책도 실시되었다. 첫째, 僧俗대중의 정상적인 종교활동이 보호를 받게 되었다. 둘째, 1988년에는 사원 수리경비로 3,000여만元을 국가경비로 지불했고, 일부 사원에는 약속을 실행하기위해 400여만元을 보상했다. 이런 지원으로 티벳지역에서 178개의 사원과 978개의 종교활동장소가 수리되어 개방되었다. 그 외에도 포탈라궁 과 유명한 사원 수리에 중앙정부와 티벳 자치구가 투자했다. 1989년 현재 티벳지역의 승려 총수는 이미 34,900명에 달하고 있다. 셋째, 개혁개방 이후 불교학자를 양성하는 학교(西藏佛學院)를 창설했다. 이를 통해 당과 사회주의제도를 옹호하면서 상당한 불교지식을 갖춘 젊은 세대 불교직업인과 불교연구원을 양성하고 있다. 넷째, 사원의 독자적인 경제활동이 허용되고 있다. 1987년 甘丹寺·色拉寺·哲蚌寺 등 3대 사원의 1인당 연평균 수입이 900여元이 되었다. 사원의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허용하는 동시에 적극적으로 각종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허용하여 사원이 자급자족하도록 하고 있다(布琼, 1989年 特刊).

그러나 1959년 승려가 약 11만-12만 정도였는데 1989년 승려수가 약 3만 5천명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아직도 적은 수이고, 그동안 종교활동에 대한 제약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불교학자의 양성도 당과 사회주의제도를 옹호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제한이 있을 수 있

11) 1989년 통계에 의하면 서장은 만명당 재학생 총수는 791명이고, 그 중 만명당 대학생은 9명中 專生은 19명, 중학생은 109명, 소학생은 654명이었다. 아동의 입학율은 단지 53%에 불과했다. 일부지역은 아동취학율이 18%이하이다(多杰才旦, 1991: 156). 티벳 전체의 교육수준을 보면 15세 이상 티벳인구의 약 44%가 문맹이거나 반문맹이다. 이는 전국평균 15%와 비교된다. 농촌지역은 80% 이상이 문맹이다(Dainzin, 1994: 14).

다. 1959년 사원재산을 몰수한 조건에서 사원의 경제활동을 허용하더라도 정부의 재정적 지원없이 사원의 자립이란 불가능할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종교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사원 및 승려의 수와 사원의 재정상황을 고려한다면 실제로 1959년 이전과 같은 사원의 역할과 종교중심의 문화활동이 회복되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런 측면은 티베트인들 특히 승려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단지 종교탄압이 완화되었을 뿐 여전히 종교적 자유는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여기게 될 것이다.

중국정부의 티베트정책은 독립반대원칙을 고수하는 전제하에서 종교나 문화활동의 제한적인 자치권 인정이다. 개혁기 티베트인들에 대한 중앙의 정책이 완화된 것은 사실이나 중앙정부는 독립을 주장하는 정치범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예컨대 '1994년까지 라사에만 6개 감옥소가 있어서 언제든지 수백 명의 政治犯을 투옥시킬 수 있다. 人權運動家들에 의하면 1993년부터 1994년까지 라사의 6개 감옥소에 구속된 政治犯의 숫자는 30%나 증가했다. 수많은 政治犯들은 외부와 통신이 단절 상태에 있으며 끝없는 심문과 구타 행위를 당하고 있다. 타지역에 있는 감옥소 숫자는 불분명하지만, 엄청난 政治犯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일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보고서에 의하면 新疆省과 青海省에 있는 악명 높은 強制勞動收容所에서 수천명의 티베트인들이 죽어 간다는 발표도 있다'(Neterowicz: 1989). 비록 극단적인 한 예일 수 있지만 이런 티베트 정치범에 대한 탄압사례는 티베트인들의 자치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중앙은 티베트인들이 중앙이 허용하는 공간안에서만 자유롭게 활동하기를 인정한 셈이다. 그런데 그 공간이 티베트인들의 정체성을 점차 약화시키고 있다면 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중국의 티베트에 대한 소수민족정책완화는 티베트인들의 시각에서는 민족정체성의 회복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중국의 티베트정책완화의 효과는 단기적으로는 티베트인들이 자신의 독립을 주장하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藏族 간부들에 의해 티베트지역이 통치되더라도 티베트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는 티베트인들은 개혁기에 중앙정부의 통제가 완화된 기회를 이용하여 독립을 통해 자신들의 전통과 문화를 회복하려 시도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의 티베트정책은 시간이 흐를수록 티베트인의 정체성이 약화되고 티베트문화가 중

국문화에 동화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개혁기 티벳의 간부 및 교육정책에 대한 소견을 내리면, 중앙의 티벳정책은 강압적인 중국화정책에서 유화적인 중국화정책으로 변화되었을 뿐 그 방향이나 원칙이 변화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볼 수 있다. 藏族 간부의 비율이 늘어난다고해도 여전히 중국은 정치·문화적으로 티벳을 통치하고 있다. 사원이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교육과 문화를 형성하던 역할을 회복할 수 없는 조건에서 티벳에 주어진 종교·문화적 자유는 형식적 자유에 불과할 것이다. 이런 문제를 알고 있는 승려층은 티벳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원의 역할과 재산을 회복하려 할 것이다. 또한 티벳의 일반인들은 중앙의 재정지원이 개인소득에 큰 혜택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들만의 독특한 전통과 문화를 유지할 수 있는 티벳인에 의해 통치되는 정부형성을 지지할 것이다. 이런 승려층과 일반 티벳인들의 요구가 맞물려 티벳이 사실상 독립이 힘든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이후 지속적인 독립운동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4. 결 론

이 글에서는 티벳독립운동의 경제적 배경을 승려층과 티벳인민의 입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중앙정부의 티벳독립운동을 비판하는 요지는 다음 두가지이다. 첫째, 1959년 민주개혁으로 티벳의 봉건제가 붕괴되어 티벳 인민들이 3대 영주의 착취에서 해방되었다. 이런 논리에 의하면 티벳이 중국으로 편입된 것은 티벳 인민의 입장에서 보면 착취에서 해방된 것이므로 1987년 이후 티벳독립운동은 단지 달라이라마를 중심으로 한 망명정부와 티벳내 일부 상층승려들의 주장에 불과하다. 둘째, 개혁이후 티벳인들의 문화와 전통이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독립하지 않고도 티벳인들의 정체성은 유지될 수 있다. 또한 티벳은 재정적으로 중앙에 의존적이므로 티벳의 독립은 티벳인민들의 이익과 부합하지 않는다. 본문에서는 이런 두가지 중앙정부의 입장이 티벳현실과 일치하는지를 중심으로 티벳인들이 왜 독립을 주장하는지 경제적 배경을 고찰했다.

본문에서 다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원과 승려층을 중심으로 통치되었던 티벳사회가 민주개혁으로 사원이 재산권을 상실하고, 종교와 정치가 분리됨으로써 사원의 정치적 역할이 거의 정지되었다. 이런 사원의 정치·경제적 변화가 승려들이 독립운동의 핵심세력을 구성하게 된 경제적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고찰했다. 민주개혁이전 사원은 경제적으로 티벳의 최대 영주였고 정치권력의 핵심세력이었으며, 티벳적 문화와 전통의 산실이었다. 그러나 민주개혁이후 재산이 몰수되면서 모든 역할이 유명무실해졌다. 개혁기 사원은 경제권없는 상태에서 종교활동이 허용되었으나 이는 실질적인 티벳인들의 종교적 자유와 전통을 보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을 것이다. 티벳독립운동가들이 봉건제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나 사원의 역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원의 경제권 회복을 요구할 것이다. 종교 중심의 사회였던 티벳에서 사원의 경제적 기반이 회복하지 않은 조건에서 종교적 자유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재정권이 없는 정부의 자치를 허용하는 것과 같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사원의 역할회복은 종교적 자유를 넘어서 티벳의 전통 및 문화 유지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 문제이다. 티벳처럼 모든 일상생활이 종교를 중심으로 움직여 온 사회에서 종교란 티벳인들의 사적인 종교활동의 범위를 넘어서 그들의 역사·문화적 전통을 유지하고, 민족적 일체감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이다. 둘째, 개혁기 티벳에 대한 유화정책이 티벳인들에게 어떤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재정지원정책과 간부 및 교육정책을 중심으로 고찰했다. 중앙의 주장에 의하면 티벳인민들은 경제적으로는 독립운동을 지지할 이유가 없다. 중앙정부가 티벳인민을 봉건제적 억압에서 해방시키고 경제적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앙의 재정지원은 전체 티벳인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농목민의 직접적인 생활향상에 사용되지 않고 대부분이 사회간접자본건설이나 행정비용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재정지원 규모가 적지 않지만 티벳인들 대다수가 직접적인 수혜층이라 보기 힘들다. 또한 장족간부 비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은 중국식 교육을 통해 이미 상당부분 중앙의 입장을 수행하는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다. 개혁기 중앙정부는 티벳에 대한 정책을 완화하여 티벳인들이 중국에 호의적이라도록 시도해 왔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승려층 외에 티벳의 일반인들도 중앙의 기대와는 달리 티벳독립에 동조적일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중앙의 티벳정책은 막대한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의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두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티벳독립운동이라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가 지닌 경제적 배경을 살펴 보았다. 그러나 이 논문은 티벳독립이 정당하다거나 티벳독립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 논문에서 살펴본 바처럼 티벳의 독립주의자들은 종교·문화적 이유 외에 경제적 이유에서도 티벳의 독립이나 독립 수준에 해당되는 자치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티벳은 독립할 힘이 없다. 중국의 일부로서의 티벳의 위치가 역사적으로 정당하든지 혹은 부당하든지 간에 1959년 이후 티벳은 이미 점차 중국의 일부로 통합되어 왔다. 티벳의 문화와 전통을 주도해 온 라마불교의 승려들은 문화대혁명을 거치면서 정치·문화적 권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박제화되었다. 현재 티벳이 藏族 간부에 의해 통치되더라도 이들은 불교 사원에서 티벳적 전통교육을 받았던 과거의 藏族이 아니다. 거의 모두가 젊은 간부들은 중국적 문화 속에서 교육받은 엘리트층이다. 이런 현실을 고려했는지 1998년 달라이라마는 티벳독립이 아니라 중국에 정치적으로는 속해 있는 조건에서 고도의 자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일보 후퇴했다.

한편 개혁개방이후 티벳의 도시는 다양한 면에서 서구화되고 있다. 예컨대 티벳의 문화를 주도하는 라싸와 같은 도시는 티벳적 색채를 잃어가고 있다. 라싸는 1990년대 대외적으로 개방된 후 외국관광객들로 붐비고 있고,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많은 호텔과 여관이 지어지고,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상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외국관광객들은 티벳의 문화만을 구경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문화를 티벳에 전파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외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질수록 티벳 역시 전통적 문화의 색채는 없어질 것이다. 서구화 역시 티벳인들의 종교·문화적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처럼 폐쇄적인 사회였던 티벳지역이 중국 및 서구문화와 교류하기 시작한 후 티벳적 전통과 문화도 타문화와 혼합되어 가고 있고, 이런 현실은 티벳독립의 문화적 정당성도 약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라싸에서 승려들이 티벳독립을 주장할지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의 요구가 현실화되기는 더욱 힘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참고문헌〉

- 달라이 티벳승 쑤, 김현도 역, 『떠돌이 성자-달라이 라마 통한의 자서전』, 서울: 예지각, 1989.
- 박장재, “西藏獨立運動의 遠·近因 分析과 전망,” 『중국연구』 제3권 제1호, (1995. 봄).
- 전인영·김소중·금희연,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 간부층원과 경제지원정책을 중심으로,” 『중소연구』(한양대 중소연구소), 20권 3호, 1996.
- 한홍석, 『강택민시대의 중국』, 서울: LG경제연구원, 1997.
- 江 平 主編, 『西藏的民族區域自治』, 北京: 中國藏學出版社, 1991.
- 孔 霞, “從西藏民主改革看西藏的人權,” 『西藏研究』, 1991年 第2期.
- 羅潤蒼, “西藏佛教思想的政教關係,” 『中國藏學』, 1994年 第2期.
- 多杰歐珠 外, “西藏人口與經濟發展論析,” 『中國藏學』, 1993年 第1期.
- 多杰才旦, 『西藏的教育』, 北京: 中國藏學出版社, 1991.
- 『當代中國的民族工作』(上),(下), 北京: 當代中國出版社, 1993.
- 廖祖桂 主編, 『藏學論文選集 1986-1996(上)』, 北京: 中國藏學出版社, 1996.
- 馬 戩, “拉薩市區藏漢民族之間社會交往的條件,” 『社會學研究』, 1990年 第3期.
- 北京大社會學·人類學研究所, 中國藏學研究中心主編, 『西藏社會發展研究』, 北京: 中國藏學出版社, 1997.
- 孫競新, 『中國藏族人口』, 北京: 中國統計出版社, 1994.
- 牙含章(1), “試論西藏封建農奴制度,” 『西藏封建農奴制研究論文選』, 北京: 中國藏學出版社, 1991. pp. 48-80.
- 牙含章(2), “西藏地方政府的反動本質,” 『西藏封建農奴制研究論文選』, 北京: 中國藏學出版社, 1991. pp. 326-341.
- A. Tom Grunfeld, 伍昆明 王寶玉 譯, 『現代西藏的誕生』, 北京: 中國藏學出版社, 1990.
- 楊健吾, “藏傳佛教寺廟經濟的變化”-四川 甘孜, 德格 兩縣 寺廟經濟活動的 調查-, 『中國藏學』1988年 第4期.
- 吳健禮 著, 『西藏經濟概述』, 中國藏學出版社, 北京: 1995.
- 吳從衆, 『西藏封建農奴制研究論文選』, 北京: 中國藏學出版社, 1991.
- (美) 梅龍, C. 高爾德史泰恩, 陳乃文 譯, “西藏莊園的周轉”-活佛轉世制度下的土地與政治-, 『中國藏學』1988年 第4期.

- 王大猷. “關於西藏經濟社會發展戰略的機点思索”. 『西藏研究』. 1998年 第一期.
- 俞允貴·文德明·金巴楊培 著. 『西藏產業論』. 北京: 中國藏學出版社. 1994.
- 李小方 編. 『內地人在西藏』. 拉薩: 西藏人民出版社. 1996.
- 庄永福. “略析西藏個體戶的發展對策”. 『西藏研究』. 1990年 第3期.
- 鄭汕主 編. 『西藏發展史』. 昆明: 雲南民族出版社. 1992.
- 中央西藏山南地委黨史征集辦公室(1). “西藏山南地區的民主改革”. 『中國藏學』. 1991年 第3期.
- _____ (2). “西藏山南地區的民主改革(續)”. 『中國藏學』. 1991年 第4期.
- 布琼. “三中全會以來黨在西藏的宗教政策.” 『西藏研究』. 1989年 特刊.
- A. Tom Grunfeld, “Developments in Tibetan Studies in China”, *The China Quarterly* No. 115(1988. Sep.).
- Bowers, Stephen. “Tibet since Mao Zedong,” *The Journal of Social, Political Economic Studies*. Vol. 19 No. 4. 1994. pp. 409-432.
- Dainzin. “Reform and Growth of Tibetan Education”. *China's Tibet* No. 2. 1994.
- Goldstein, Melvyn C. and Beall, Cynthia M., “The Impact of China's Reform Policy on the Nomads of Western Tibet”, *Asian Survey*, 1989, 24:6.
- Huang, Yasheng. “China's Cadre Transfer Policy toward Tibet in the 1980s.” *Modern China*. Vol. 21. No. 2. 1995. pp. 184-204.
- “Inland Helping Tibet.” *Beijing Review*. 1984. 9.
- “Radi On Tibet”. *China's Tibet* No. 3. 1994.
- Robert Barnett. *Resistance and Reform in Tibet*.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1994.
- Ronald D. Schwartz. *Circle of Protest-Political Ritual in the Tibetan Uprising*.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4.
- Rong Ma. “Han and Tibetan Residential Patterns in Lhasa.” *The China Quarterly* No. 128(1991. Dec.).
- Xiaowei Zang. “Ethnic Representation in the Current Chinese Leadership”. *The China Quarterly* No. 153(1988. March).
- Yun-yuan Yang. “Controversies over Tibet: China versus India, 1947-49”. *The China Quarterly* No. 111(1987. Sep.).

Warren W. Smith, Jr. Tibetan Nation. Colorado. Westview Press. 1996.

<신문기사>

『동아일보』. 1993. 5. 26.

『한국일보』. 1990. 5. 23.

『한겨레』. 1996. 6. 3.